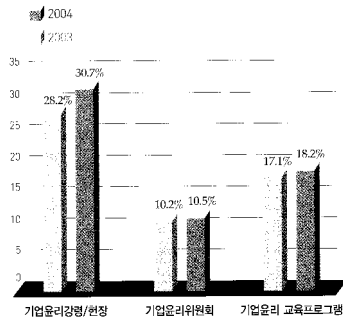




경영 윤리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요즘, 벤처기업들이 실천해 온 윤리경영 사례가 눈길을 끈다. 협회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다각도의 노력은 벤처기업의 윤리역량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 점차 선진형으로 거듭나고 있는 벤처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자.

벤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작은 노력들



	2003년	2004년
기업윤리강령/현장	28.2%	30.7%
기업윤리위원회	10.2%	10.5%
기업윤리 교육프로그램	17.1%	18.2%

※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 실태조사



기

업의 윤리경영 실천은 사회적 요구이며 기업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기업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더욱 귀감이 된다. 실제 투명사회협약 가입, 윤리강령 제정, 사회공헌 등 다양한 모습으로 윤리경영을 향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는 벤처기업들이 존재하며 해마다 참여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개별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협회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윤리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윤리학교 운영 개최, 윤리강령 선포, 윤리경영실천가이드 발간 등을 전개해 벤처기업 전반에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설파해 온 것. 건전한 투명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일익을 감당해 온 협회의 윤리경영 확산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벤처윤리위원회 운영

협회는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방향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윤리사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벤처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계, 시민단체, 법조인 등 기업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벤처패자부활제 운영방안을 구축하고, 윤리경영 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코스닥위원회,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등과 확대간담회를 열고 벤처업계에 윤리경영 바람을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윤리경영을 하는 벤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벤처인들의 인식을 환기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리강령 선포

지난 2002년 벤처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벤처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주축으로 벤처기업인들의 윤리강령 선포가 있었다. 윤리강령은 ▲경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립으로 공정한 이익 도모 ▲건전한 지배구조로 기업가치 극대화 추구 ▲섬김의 자세로 고객에게 최선의 가치 제공 ▲기업구성원들의 정당한 보상과 자기능력 발휘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구축 ▲나눔과 배움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봉사에 기여 ▲공정경쟁 질서와 원칙 존중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리경영사례 연구

윤리경영사례 연구는 경영자는 물론 기업구성원들의 윤리적 자각과 윤리적 경영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2003년에는 윤리경영 우수 5개 벤처기업 사례 및 비윤리경영 사례를 연구했으며, 2004년에는 윤리경영 우수 5개 벤처기업 사례 및 윤리경영 쟁점사안 사례를 연구해 벤처기업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개별 기업에 배포하거나 향후 윤리경영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온라인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온라인자가진단시스템은 벤처기업 스스로 벤처윤리경영 모형에 기초한 자신들의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 약 100여 개의 진단항목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사회공헌 선포

협회는 '사회공헌 포럼'을 개최해 벤처산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 실적을 정리해 왔다. 또한 '사회공헌 선포식'을 갖고 향후 전개할 윤리경영 및 사회적 공헌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윤리경영실천가이드 발간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윤리경영실천가이드를 발간했다. 이 가이드는 벤처기업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벤처윤리학교 개최

연 4회에 걸쳐 열리는 벤처윤리학교는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벤처기업의 역할,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진단, 윤리경영 해외 최근 동향, 리스크 관리 등이며 윤리경영 실천 워크숍과 초청강연 및 토론회도 함께 진행한다. 벤처윤리위원회 중심의 윤리교육 전문가와 윤리경영 우수기업 실무책임자 등이 강사로 나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벤처기업 사회공헌 참여 활발

최근 벤처기업은 윤리경영을 넘어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7월 11일 NHN과 아름다운재단은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제휴해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happybean.naver.com)'을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해피빈은 인터넷으로 국내 1만여 개 시민사회·복지단체들의 각종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네티즌들이 온라인으로 기부를 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채널로 기능하게 된다. 벤처기업협회와 게임산업협회는 소속 기업들이 해피빈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도록 홍보·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NHN은 향후 5년간 해피빈 활동에 200억원(현금 100억원, 현물 100억원), 영화 등 문화사업과 환경·교육분야 공익사업에 100억원(현금 80억원, 현물 2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4월 13일에는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가 창사 10주년을 맞아 차사 50억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황대표의 장학재단 설립은 사회 이익 환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근 만연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벤처기업인들이 우선 100억원의 기금을 모아 설립하는 벤처문화재단도 곧 발족할 예정이다. 벤처문화재단은 벤처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나눔정신을 실천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